

## 우리가 고대하는 건축계

### The Architectural Society for the New Age

이상해 /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Lee Sang-Hae

우리들은 건축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 좋은 건축에 대한 자각이나 좋은 건축을 보고 얻는 희열로 건축으로도 아름다운 삶을 구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건축에 대한 순수함 자체로 충만된 지나간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을 건축인들이면 누구나 소중히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일찍이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테스트먼트』를 어렵게 사서 두고두고 읽은 적이 있다. 가슴이 뭉클하는 순간 순간으로 끌고 가는 내용으로 차 있었다. 그에게 건축은 삶 자체였다. 거기에는 고뇌에 찬 한 건축가의 진솔한 표현과 건축에 대한 애정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그는 정말 극적인 삶을 살며 건축을 하다가 간 건축가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한마디로 거인이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건축가의 이미지와 길은 라이트의 그것과 같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싶은 건축가, 고대하는 건축가는 어떤 건축가일까. 환경을 생각하고, 도시를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고, 시대를 다시 읽고, 기술의 진보를 알고 실험을 계속하며 창작에 몰두하는 건축가일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논의해야 할 건축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 건축가는 건축에 첫 발을 디디며 자신에게 다짐을 했던 초발심의 세계를 그대로 지니며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가다. 그런 건축가는 분명 남들과 다른 설계사무실을 꾸려나갈 것이다. 건축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는 알 되, 세속의 흥진에 찌든 건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으며 겸허한 자세로 이 시대 건축인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건축에 임하는 건축가,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세상을 탓하지 않는 건축가, 고독과 싸우고 엄습하는 절망감을 딛고 일어서는 건축가, 잘못된 건축계의 관행에 대해서는 결연히 대항하는 건축가, 그런 건축가를 사방에서 보고 싶다. 그런 건축가가 소중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보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상황과 다르게 움직인다. 그런 건축가들은 현실세계에서 사무실 문을 닫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건축계다.

2001년이 시작되었다. 시작은 누구에게나 다른 때보다 더 의미가 크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설레게까지 만들며,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고 앞날을 준비하게 만든다. 바로 엇그제, 새 천년이 시작된 지난 해 연초에도 우리는 해맞이를 하며 지금과 같이 부푼 기대를 걸었다. 결혼을 앞둔 여인이 결혼만 하면 현재 생활의 질곡에서 벗어나 백마 타고 온 왕자님과 딴 세상에서 공주처럼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처럼.

아무 것도 아닌 2000이란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패들에 휘말려 새 천년의 한 해가 가고, 또 새해

가 시작됐다. 새해니, 새 천년이니 하는 것은 호들갑을 피우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덧없는 언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휘말려 다시 자신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주변을 되돌아 보게된다. 시작이라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2001년을 맞는 한국 건축계는 유난히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앞날을 준비해야 할 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직설적으로 말해 우리 건축계가 안고 있는 과제와 어려움에 관한 것들이다. 지금 우리 건축계는 헤쳐가야 할 난제들을 많이 안고 있고, 또 우리 건축계에는 불황이라고 술렁대는 정도를 넘어 사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래서 새해 우리 건축계는 유난히 더 쓸쓸하다.

건축실무를 하는 설계사무소는 일이 없고, 대학 졸업예정자들의 갈 길은 어둡기만 하다. 지금 한국건축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분수령에 서 있다. 한 세기를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 아니라 개방화, 세계화와 함께 IMF의 한파로 건축계의 사활이 걸려 있는 분수령을 헤쳐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암울한 한 해를 맞으며 우리 모두 지치고 초췌해졌지만 되돌아보고 새로 다짐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한국의 건축인들은 제 살을 갠아먹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 서로가 남의 밥그릇을 넘나본 지 오래되었다. 건축의 세계와 영역을 넓히고 키워나가 먹을거리가 더 많도록 해야 할 시기에 한국의 건축인들은 그들 세계 속의 주어진 밥그릇을 누가 먼저 어떻게 차지하느냐에 더 관심을 쏟았다. 그 좋은 예가 건축가의 고유 권한과 영역에 속하는 건축 감리와 설계비에 관한 것이다.

우리 건축계에는 특정 건물일 경우에 건축가가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이 어떻게 시공되어 세워지는지 볼 수가 없게 장치가 된 지 오래되었다. 내가 낳은 아이 보육을 남에게 맡기는 형국이다. 건축 설계에 대한 설계비를 제대로 받도록 하는 장치를 박탈당한 지도 오래되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노동부에서는 건축사 자격을 부동산중개사, 주택관리사, 안경사 정도의 전문직으로 이해하고 이들 자격자에 대한 “자격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든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 건축사(가)도 포함돼 있었다. 이때까지 건축사는 의사, 변호사와 같은,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전문가 직종인 줄 알았는데, 건축사를 단순한 산업기술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법률(안)은 건축사협회의 반대의견이 반영되어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건축사는 제외되었다고 한다. 여하튼 앞으로 건축사(가)의 사회적 위상에 대해서는 건축계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고, 그런 측면에서 건축계가 대처해야 할 일도 많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건축계가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정도는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표적인 예가 건축교육 및 건축사 자격 국제공인에 관한 문제다. 이미 1990년대 초를 지나면서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가시화되어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1996년 바르셀로나 UIA총회 때는 이미 공론화 되어 총회에 참석한 건축가들 사이에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졌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이에 대처하였다. 건축교육제도는 진작 고쳐야 했고, 건축사(가) 자격 국제인증 문제는 일찍 대처했어야 했는데도 이제야 건축(학)계를 술렁이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일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런 현실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 건축계다

우리 건축계는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앞으로 건축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읽어내는 건축계의 원로나 지도자 그룹이 없기 때문이다. 어렵고 어두운 시대 상황일수록 현실을 직시하고 밝히며 방향을 제시할, 건축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건축의 사회적 위상을 지켜줄 역할을 제대로 할 지도자(그룹)가 건축계 전면으로 부각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변화가 급진적인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의사결정 능력인데, 우리 건축계는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우리 건축계가 가야 할 방향 설정을 위해서도 우리 건축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인식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 건축관련 단체가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더욱 다지는 모임 정도로 머물러 있다면, 어서 거기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건축단체들이 서로 발목을 잡는 작태가 있으면 시정하여야 하고, 서로 힘을 합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따로 따로 사업을 벌려서는 안 된다. 당장 닥칠 혼란이 두려워 계속 잘못 낀 단추를 채워나가는 일을 우리는 그만두어야 한다. 조잡하게 학연과 지연에 얽매어 건축계를 이끌어갈 사람에게 표를 던져 단체의 대표를 선출하였다면, 이제 그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기로 작심했다면 더 이상 건축계의 어려움에 대해 탓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과 주변에 대한 집착과 욕망과 관계되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세계다. 한국 건축계는 세계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할 때다. 우물 안에서 아웅다웅 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세계적 지평을 가진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국제적 형세를 읽을 사람과 단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세계로 한국건축이 가도록 우리가 바라는 건축계의 모습은 새롭게 변신되어야 한다. ㉮